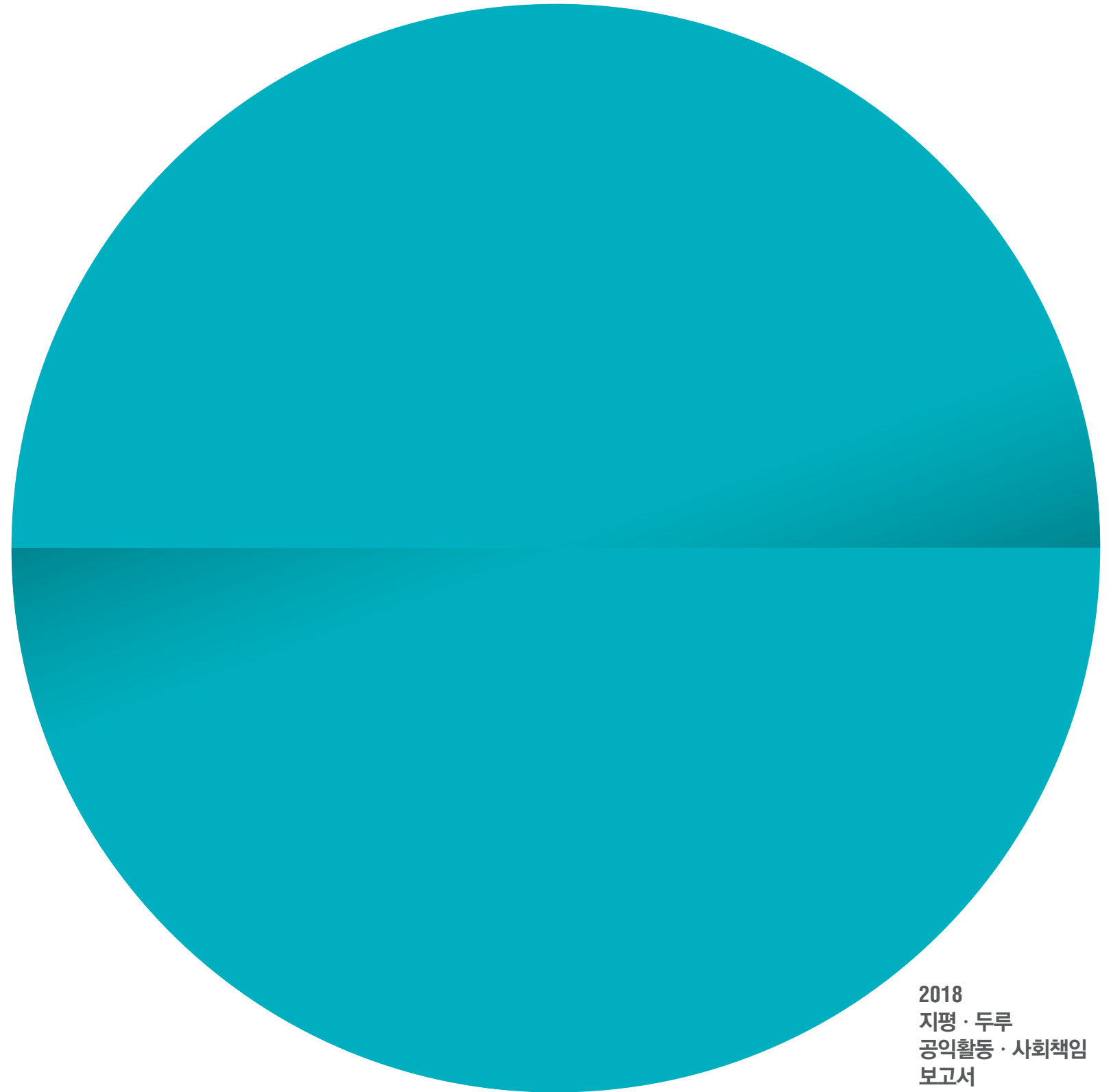


JIPYONG
DUROO

PRO BONO
CSR

ANNUAL
REPORT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 지평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8층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www.duroo.org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
보고서

MESSAGE

인사말

02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지표

04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6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01 장애 인권활동
-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04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 05 기타 공익활동
- 06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8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 01 사회공헌활동
- 02 기부활동
- 03 공익교육활동

18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 01 2018년도 사회책임 이행 내역
- 02 구성원의 다양성
- 03 소수자 차별금지
- 04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 0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 06 탄소배출 감소 및 재활용품 사용

24

INTERVIEW

공익활동
이야기

- 01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향해 지평과 함께 걸은 길을 듣다
- 02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팀에게 장애인권 제도개선 방향을 듣다
- 03 바리스타 오경선 사원을 만나다
- 04 소셜벤처를 위한 소셜벤처, 'SOPOONG'을 이끄는 한상엽 대표에게 듣다
- 05 설립 5주년을 앞둔 '두루', 8인의 공익변호사가 된다

46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48

34

2018 JIPYONG DUROO PRO BONO CSR REPORT

MESSAGE

인사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지평과 두루는 시인이 얘기하듯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도 자라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세상에서
지평과 두루의 가족이 삶을 나누면서 이웃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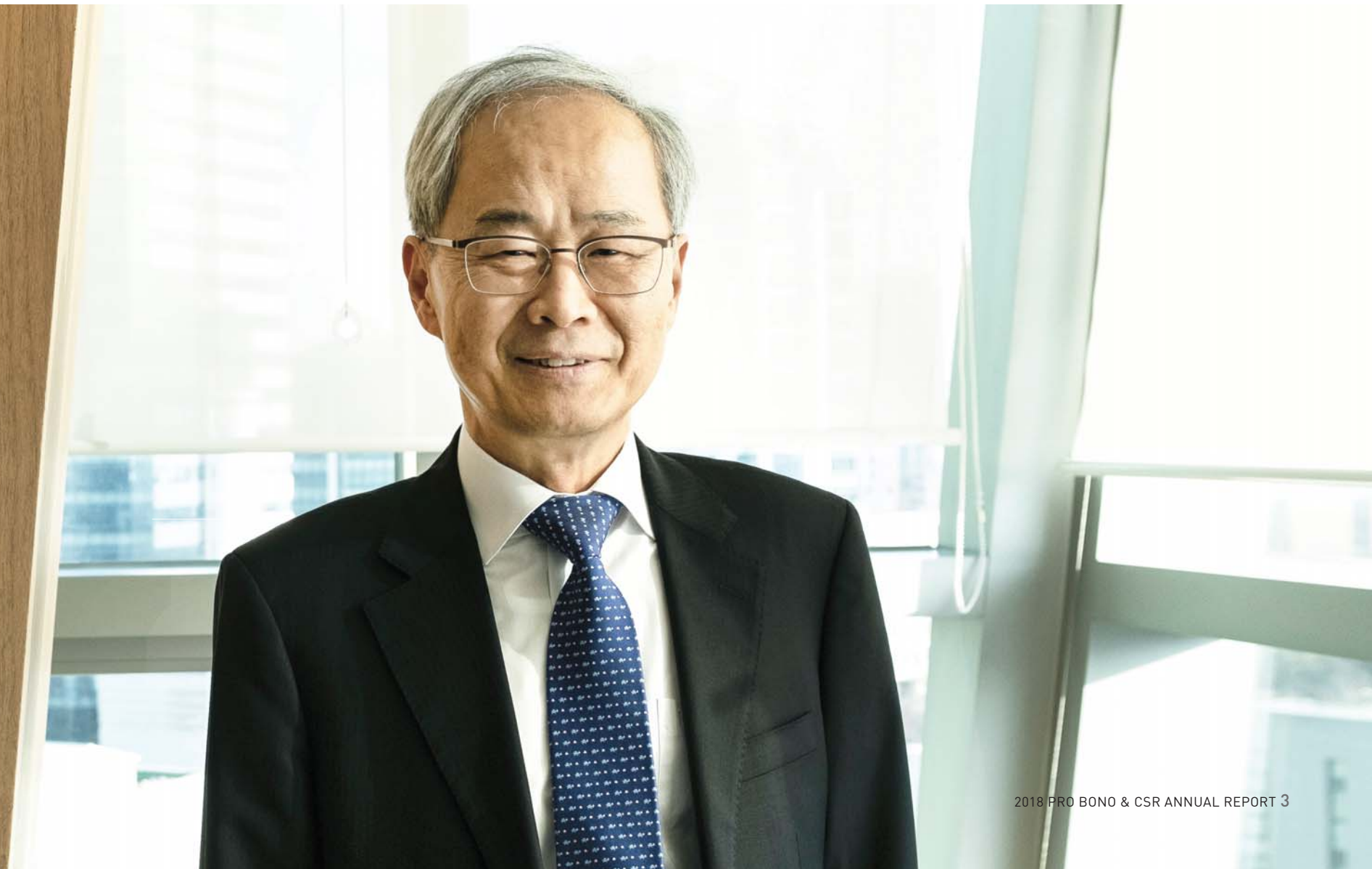
함께 가면서 나누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아파하면서 우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을 노래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지평과 두루는 과거사 피해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난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아동과 청소년,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지치고 넘어지려 할 때
뒤에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면서 나누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 & 지표

"나눔, 배려, 참여"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시작은 지평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공익활동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8년 지평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7,778시간으로 7,000시간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보다 총 공익활동 시간은 1,843시간이 늘었고, 공익소송과 자문, 상담이 골고루 늘어 법률지원 내용이 보다 풍성해졌습니다.

변호사들의 참여율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54.02시간으로 50시간을 넘었습니다. 144명의 국내변호사 중 139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96% 이상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도 68.75%에 이릅니다.

2018년에는 변호사뿐 아니라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크게 늘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3,000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7,778.63^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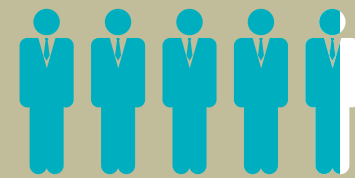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7,778.63시간 : 144명)

54.02^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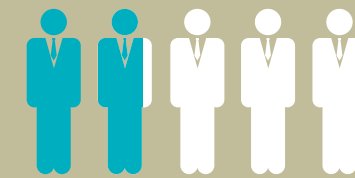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139명 / 144명)

96.53%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9명 / 144명)

68.75%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소속변호사(67명 / 70명)

9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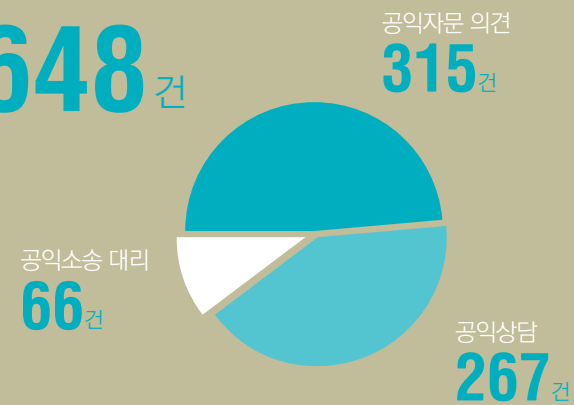
구성원변호사(72명 / 74명)

97.30%



공익활동 수치

648 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직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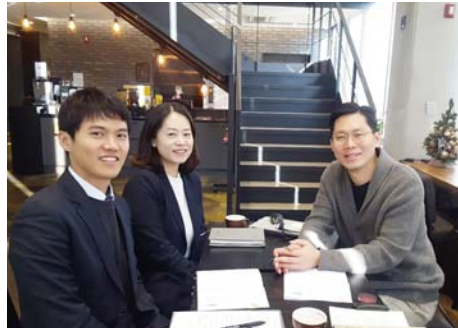
1인당

8.11^h



전체구성원(375명)

3,039.65^h



01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지평과 두루는 소셜벤처의 회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의 프로보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02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위헌 결정

지평은 군사 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했던 일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03

더엘(the L)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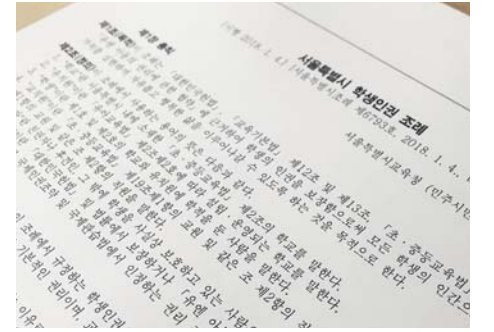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사건을 맡아 인권침해와 비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단의 정상화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판 도가니'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인강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4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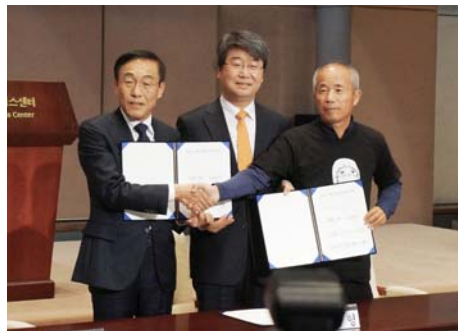
지평과 두루는 5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및 최종준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 평가지표를 기초로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협약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위 지표에 기초한 민간 평가조사 결과, 쟁점별 이행현황 조사 결과, 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0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 서울교육청을 대리하여 1심에서 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6

삼성전자 사업장 백혈병 발병 관련 문제 해결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 만에 문제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는 노동 현장에서 부딪히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7

난민 조력 확대 및 네트워크 참여

지평과 두루는 2017년 난민인권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2018년에도 난민에 대한 조력을 이어 나갔습니다. 특히 두루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TF, 혐오대응 TF 등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난민 조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08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승소

지평은 양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강용주 님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평은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12월 17일 강용주 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고, 강용주 님은 석방 이후 19년 만에 보안관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09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업무 영역의 확대

지평과 두루는 2018년에도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2018년에 새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SOPOONG 등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위 기관들에 대하여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

두루 공익변호사 8명으로 증원

두루는 2018년에 3명의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면서 8명의 상근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4년 설립 이래 매년 1명 이상의 변호사를 꾸준히 채용해 온 두루는 유례 없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며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 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꿉니다.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 장애 인권활동
- 아동·청소년·교육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 기타 공익활동
-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공익소송 수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신길역 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주요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 수행
-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
- 인강학교 폭력사건 피해자 형사사건 지원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용역 참여
-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연구용역 참여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교육 관련 법령 연구 자문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례회의 참여, 상시 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제작 후원 및 편집 참여
-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운동
-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 운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우리나라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14년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포함한 국가보고서를 2020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5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정부의 CRPD 및 최종견해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위 평가지표를 기초로 이행현황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에는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위 지표에 기초한 민간 평가조사 결과, 쟁점별 이행 현황 조사 결과,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신길역 사망 사건 공익소송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루는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길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하철역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리프트는 위험하고 불편하며, 수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에도 편의시설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는 위 사건을 계기로 영등포구청역사 내 환승동로, 충무로역사 내 환승구간, 신길역사 내 환승구간, 디지털 미디어시티역사 내 이동구간, 구산역 이동구간에 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 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2>가 발간되었습니다. 위 해설서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김명실 이사장)가 2015년 발간한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집 <우리 모두 소중해>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의 사례를 쉬운 설명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평은 <우리 모두 소중해>에 이어 <우리 모두 소중해2>의 제작을 후원하였고, 두루의 이주연 변호사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수행

지평과 두루는 4월부터 7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에서 추출한 아동의 권리를 바탕으로 국내 소년사법제도의 이행실태 조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관련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사법제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현장종사자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강제추방된 해외입양인을 위한 소송
- 아동학대 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지원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대리 및 무고사건 변호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 「입양특례법」 및 심대 성매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쫓겨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 관련법,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전국 출생등록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법률매뉴얼 공동집필
-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대응을 위한 NGO연대보고서 작성 및 모니터링 활동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이브더칠드런, 심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청소년 정책 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아동의 권리」 공동집필
- 심대여성인권센터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매뉴얼 공동집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공동주최

두루는 8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대여성인권센터 등과 공동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성매수자만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성매매 관련 국제정책의 선두가 된 스웨덴, 모든 법령에서 '성매매' 용어를 '성착취'로 바꾸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을 피해자로 분명히 한 영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했고, 두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심대 성매매 정책을 검토하는 내용의 발제를 하였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전국 출생등록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법률매뉴얼 공동집필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생등록 실태조사, 「탄생 축하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두루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축적된 출생신고 사례에 기반해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매뉴얼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2015년), 크레비스파트너스(2017년), SOPOONG(2018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법률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들이 안정적이고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손컴퍼니, 맛있저염, 어썸스쿨, 이자앤모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검토, 저작권, 공정거래,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지평과 두루는 소셜벤처의 회사 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변호사의 프로보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평 변호사와 소셜벤처를 매칭하는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선정된 20개의 소셜벤처와 40여 명의 지평 변호사를 각 매칭하여 소셜벤처가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법률 및 인권교육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 입주사를 대상으로 법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평은 계약 일반, 지적재산권, 노동법, 주식회사 운영 일반, 세법 등을 주제로 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고,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 인권, 이주민 인권, 협동조합,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주요 활동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금융취약계층 지원 단체(주빌리은행,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 대한 법률자문
- 비정상대출(직업대출, 내구제 대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 사회적기업 전문투자신탁 펀드 조성 등 임팩트 금융 관련 법률자문
- 협동조합 제도개선 연구회(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참여
- SIB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
- 유럽연합 협동조합 공동원칙을 통해서 보는 한국 협동조합 제도개선 방향 연구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교육
- 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 기획 및 진행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주관 캐나다 사회적 금융 연수 참여

04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제도 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가족결합권, 아동구금 관련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제주 지역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및 공항만 난민신청자 법률 조력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망 산업재해 소송 대리
-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GCM) 백서 작성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 체계에 대한 상시적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법률자문
- 주 러시아 중소기업연합회, KOTRA 러시아 무역관,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및 법률자문, 서남권글로벌센터 정기 상담 및 법률자문
- 훈인이주 여성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
- 이주민 대상 법률교육, 이주민 인권을 위한 법률교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참여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방한 시민사회 대응 참여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가이드라인 작성

2018년 유엔에서 통과된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CM)는 이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와 각국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두루는 글로벌 콤팩트의 이해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여 글로벌 콤팩트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두루는 특히 각 목표의 해석, 목표와 관련된 법적 및 정책, 글로벌 콤팩트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사항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난민 지원 확대 및 구금 문제 대응

지평과 두루는 2017년에 난민인권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2018년에도 난민에 대한 조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평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 중 가장 많은 사건을 맡아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고, 특히 두루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을 지원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난민네트워크, 출입국항 TF, 혐오대응 TF 등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난민 조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 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 봉사활동 및 공익법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참여

두루는 이주민을 조력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이주민권 사례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권사례연구회에서는 2018년 공동 사업으로 2017년 1월~2018년 6월에 있었던 판결례 중 이주민의 인권에 디딤돌이 된 판결과 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평의 국제인권소위원회와 두루의 10여 명의 변호사들이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은 2019년 2월 중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지평과 두루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이 부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가해자와의 이혼을 원하였으나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망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고, 망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자 가해자가 신고 당일에 망인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형사재판에서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역 25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성폭행 신고의 처리에 관한 경찰의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지평과 두루는 취사병으로 군 복무 중 희귀질환을 얻은 상이군인을 대리하여 국가유공자인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소속 부대는 취사병이 편제에 비해 모자랐고, 고된 업무는 당사자를 비롯한 후임병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당사자는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치료는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과 두루는 과로가 질병의 유발 및 악화요인을 지적하면서 충실히 군생활을 하다가 시력을 잃은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군인의 건강권과 의료권에 관한 청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통일, 여성 인권, 군 인권 등 다양한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5

기타 공익 활동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집회·시위의 자유 /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 훈련소 내 선거정보접근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군 인권 / 군 복무 중 희귀질환 발병자 대리 국가유공자인정소송
- 시민단체 / 아쇼카 한국 '공감의 뿔' 프로젝트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산나눔재단 자문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 기타 / 피보호감호자 임금청구소송
- 기타 / 수형자 의료권 침해사건 법률조력
- 기타 / 중국동 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국가배상청구소송
- 기타 / 세월호 민간잠수사 보상금청구소송
- 기타 / 엄궁동 살인사건 재심청구
- 기타 /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및 위헌소송
-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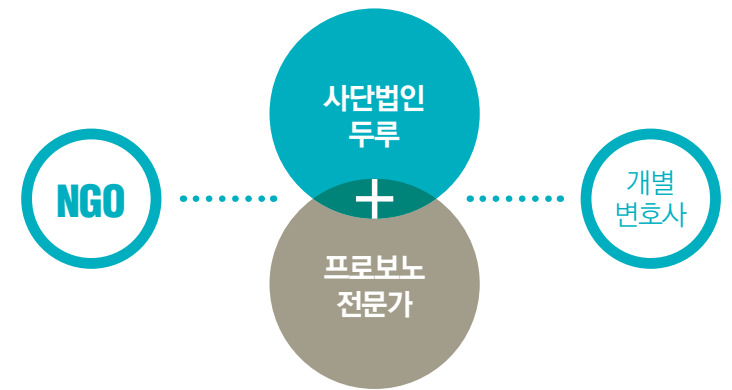
06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지평과 두루는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와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를 연결하고, 개별 변호사가 공익법 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 활동 중개시스템 구축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 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인권단체 사이에 공익법 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두루, 공익변호사 3명 추가 채용
- 로펌 공익전문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사무국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 및 법률지원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법률지원
- 제7회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참석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심포지엄 개최

지평과 두루가 속해 있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4월(상반기)과 9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공익단체와 로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결성되어 2주년을 맞이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이 서로 힘을 합쳐 로펌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지원

두루는 11월 13일(서울), 11월 15일(대전)에 진행된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학생들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에 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라운드테이블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발제와 사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애란원 및 루트임팩트 법률교육 진행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루트임팩트와 연결된 소셜벤처와 국내 최초 미혼모 시설인 애란원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에 두루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0여 명의 공익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공익변호사모임에서 두루 변호사들이 사무국, 공익 행사 참여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평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에서 공익변호사들은 공익활동의 노하우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두루는 여름과 겨울 각 3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파견되어 단체의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이진훈 학생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다른 변호사단체에서는 느낄 수 없을 것들을 두루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공익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률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선불리 공익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루'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보였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정에서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읽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루'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좋았습니다. 함께 실무수습을 했던 친구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던 두루 변호사님들, 특강을 해주시거나 식사를 함께 한 지평 변호사님들까지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공익'이란 가치를 꿈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정말 즐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송의 진행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며
얼른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공익변호사가 될래.', '나는 인권변호사가 될래.' 법학전문대학원생이라면 공익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익변호사나 인권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에서 지낸 시간 동안 공익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함께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제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의 남은 시간과 이후 변호사로서 제가 살아갈 시간을 지탱해 주는 큰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차에는 제 관심 영역인 아동·청소년 영역에 대해서 해당 영역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들께 개별 과제를 부여 받아 해당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로부터 저희가 구성한 법리나, 자료들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고 법리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단순히 책을 공부하며 얻을 수 없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내에 변호사가 된다면 함께 이 소송의 진행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며 얼른 실력을 갖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볼 때는 '이걸 어디에 써먹지?' 하고 느꼈던 것들이 풍부한 것들을 엮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니다.

저는 이번 학기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서 공익에 대해서 더 두루 보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공익을 지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두루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루에서의 실무수습은 방학 동안 한 어느 경험보다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현 학생

함께 '땀'을 흘리며 이웃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돕기 마라톤대회

지평과 두루는 4월 14일 여의도 한강변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마라톤대회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30여 명은 5km 걷기 종목에 참가하였고, 참가비 전액은 거례얼학교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비 오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7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 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10월에는 같은 곳에서 벼 베기와 탈곡, 고추 수확 등 가을 수확기 마을 주민들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숲 가꾸기

지평과 두루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숲 가꾸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매해 환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임직원 14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위에 나무를 심는 숲 가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땅 지구에 쓰레기 대신 맑은 자연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환경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돕습니다. 노숙인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거례얼학교 후원의 밤

지평과 두루는 10월 25일 거례얼학교 학생들과 '거례얼학교 후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거례얼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하며, 학생들과 게임을 통해 선물을 전달하는 뜻 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례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2세 아동들이 정착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 교육에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평은 2011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참여

지평과 두루 구성원 40여 명은 11월 24일 '2018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과 두루는 2005년부터 14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2

기부 활동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숨'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음악회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권비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시각장애인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비 지원
- 국제아동인권센터 '탄생 축하 프로젝트' 지원
- 장애인인권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발달장애인법 해설서' 제작 사업 지원



향유의 집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지평과 두루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이른바 '탈시설')을 꾸준히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향유의 집은 사회복지법인 스스로가 시설을 해체하고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향유의 집 거주인에 대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이 프로그램에 재정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향유의 집 거주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면 탈시설 운동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탄생 축하 프로젝트' 지원

출생신고는 이 세상이 한 아이의 탄생을 맞이하는 최초의 공적 절차로서, 모든 아동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보고자 이 사업을 두루와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본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이 같이 될 때' 홍성수 교수님 초청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2월 28일 2018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말이 같이 될 때(부제: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은 한국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시작으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대상 및 양태, 유형, 사회적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혐오 문제와 맞닿아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규제한다면 그 규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방향과 내용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강연 참석자들과 뜨겁게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현실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6월 21일 2018년 제2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주제로 하였고,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이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100만 명 시대, 우다야 라이 위원장님은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의 한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하여 2009년부터 이주노조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2010년부터 민주노총에서 일하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이 나온 지 3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주노조는 왜 필요한지, 그보다 앞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지 들여보았습니다.



마리몬드 이야기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11월 22일 2018년 제3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마리몬드'의 윤홍조 대표님을 통해 마리몬드의 설립부터 성장 과정, 앞으로의 비전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몬드는 디자인 제품과 관련한 콘텐츠 및 프로젝트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동반자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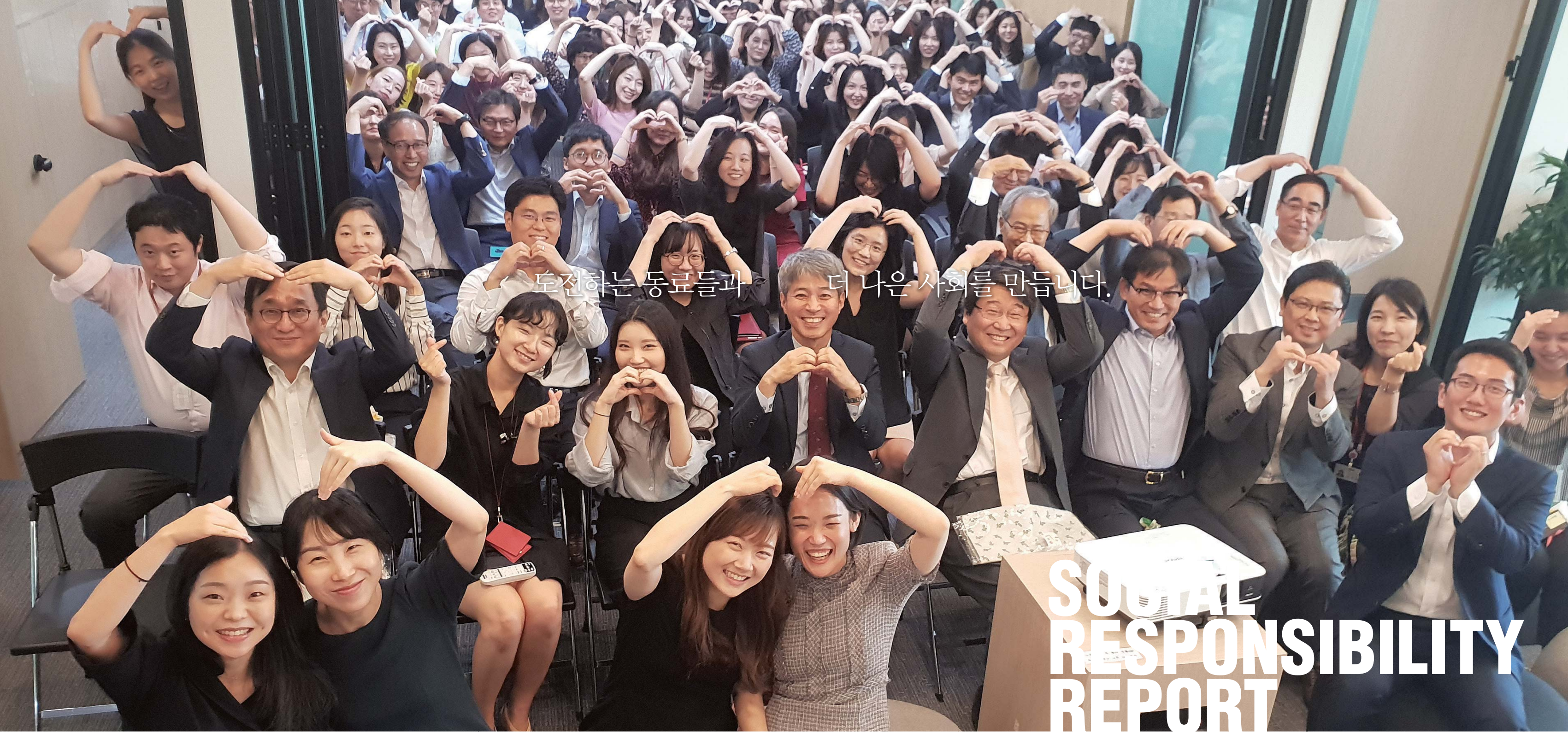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지평과 두루는 9월 6일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의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서른 살이 된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장혜영 감독이 유튜브 채널에 동생과의 일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그 기록 영상을 편집하여 완성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공익에 다가서고, 공익 ·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기 별로 공익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



도전하는 동료들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듭니다.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사회 책임 보고

- 2018년도 사회책임 이행 내역
- 구성원의 다양성
- 소수자 차별금지
- 채용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 탄소배출 감소 및 재활용품 사용

01

2018년도 사회책임 이행 내역

법과 윤리

01 로펌 내 이익충돌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통제절차

지평 윤리헌장 존재(의뢰인을 위한 충실의무, 고지의무, 정당한 범위의 업무처리, 보수의 크기와 무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 쌍방대리 금지, 사익추구금지, 차별금지 등 13개 조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체크시스템 존재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노력 시행 등

02 위법행위 발견 시 통제절차

위법행위 발견 시 신고절차 존재
(윤리헌장 13조 : 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절차)

03 공정한 전문가 활용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입제한 의무 준수

비변호사 고문의 숫자가 매우 소수(6명) / 자문·전문위원 제외

차별금지 인적 다양성

01 구성원의 다양성

높은 여성변호사 비율(전체변호사 중 35.8%)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로, 의무고용률 준수
(지방·해외 사무소를 포함할 경우 2.4%로 의무고용률에 미달)

시각장애인 미국변호사 채용(2015. 9. 1.)

수화를 제1언어로 하는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근무

탈북민 근무

경력단절여성 채용

'예비구성원회의(예비구성원변호사 모임)'가 제안한
업무혁신위원회를 수립하고, '소울(직원 모임)'을 통하여
경영과정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02 소수자 차별금지

소수자 차별금지 정책 존재
(소수자를 배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활동을
주요 공익활동으로 설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사용

03 채용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

성별,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장애 유무에 관한 차별 없이 채용

입사지원서에 부모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음

인터뷰 선발 시 부모 등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사진 부착란 없음

특정 대학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에 따른 개선 노력

신입변호사들은 모두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작성

0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변호사 : 출산휴가 1건, 육아휴직 1건, 혼합사용 2건

직원 : 혼합사용 8건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5건, 육아휴직 1건

임신 기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2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무제 7건

인사평가(유학 대상, 승진)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음

임신과 출산(육아) 대체인력 수급절차

- ① 기존 휴직자 복귀 시점 조율하여 대체
- ② 대체 불가시 신규채용
(정규직 또는 휴직자 복귀 시점까지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③ 휴직 중인 직원 업무 대체 직원 지원
(장기 부재 직원 업무 팀원 분담, 추가 수당 지급)

변호사 4년 차, 직원 10년 차에 안식 휴가 제공(변호사 8건)

가부, 사회봉사, 공익활동

기부, 자원봉사, 공익소송의 수행·지원, 무료법률상담,
공익변호사 인건비 지원, 예비 공익변호사 양성·지원,
공익단체 지원, 공익법 연구, 공익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입법지원

총 공익활동 7,778.63시간

상세내용은 공익활동지표 참조(48~49쪽)

법조인 양성

01 수습변호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하계 및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시행

두루 공익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02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과목 교육 지원

소속 변호사들이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실무과목 강사로 활동

적절한 사건 수임

01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수임 배제

윤리 또는 사회정의에 반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내용의 업무 수임 배제(윤리헌장 3조)

02 과도한 사건 수임 자제

탈법적 방법의 수임금지

과도한 수임 경쟁 지양

※ 위 표의 항목은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로펌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을 통해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통계와 활동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

01 탄소배출 감소 활동, 재활용품 사용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기절약 캠페인, 종고책방 등
자원순환 운동 전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컵 사용 지양,
일회용 컵홀더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컵홀더 제작

이면지 사용 등 재활용품 사용 권장

02 환경 관련 NGO 지원

환경 공익소송 수행(송전선로 피해보상 관련 헌법소송 진행 중)

환경 관련 NGO 지원

정보공개와 사회적 책임 보고

01 구성원 현황 등에 대한 로펌 정보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성원 현황 및 조직 변동사항 실시간 업데이트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의한 정보공개

02 사회적 책임 보고서 발간

로펌 최초로 2016 지평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2014~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발간,
2017 지평·두루 공익활동·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입법지원, 제도개선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공정무역 제품 구매

소셜벤처와 소속변호사를 1:1로 연결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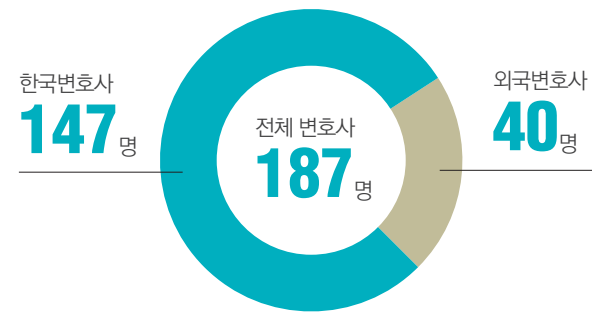
거래 : 닥터브로너스, 마리몬드, 베어베터, 소녀방앗간 등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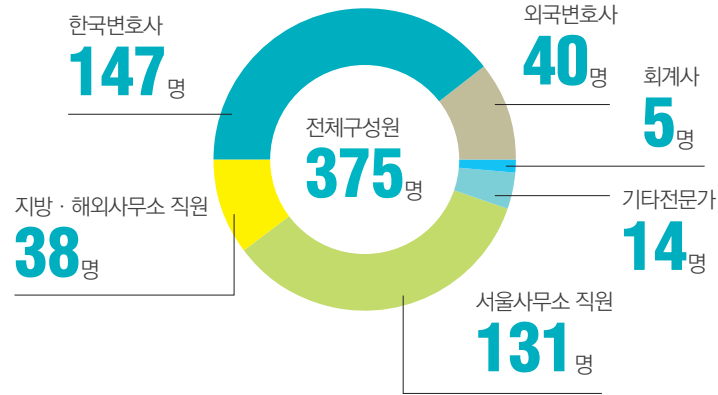
구성원의 다양성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로펌,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지향하는 지평은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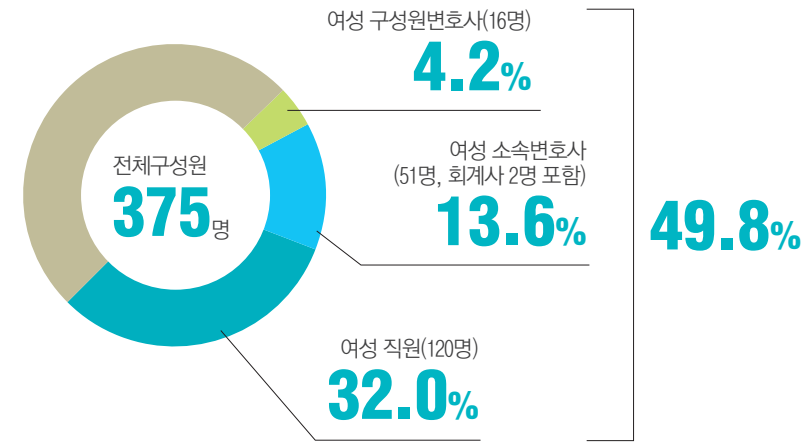
전체변호사 수



전체구성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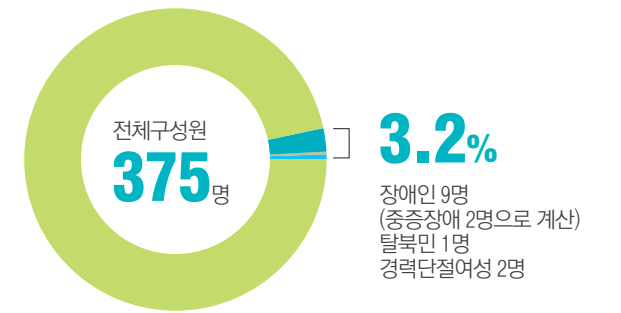


전체구성원 중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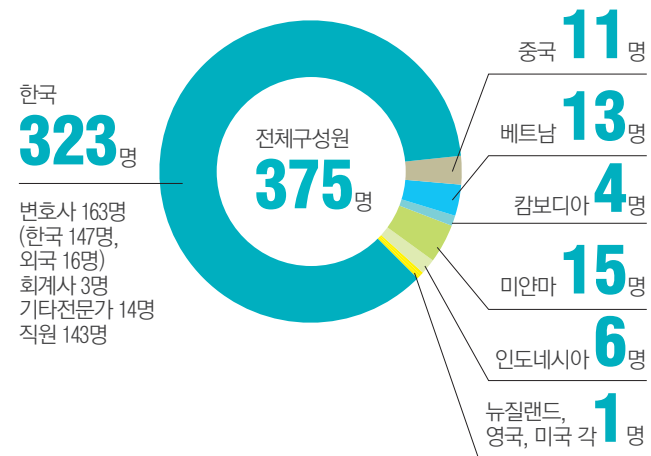
* 변호사 중 여성 비율은 35.8%(67명 / 187명)

전체구성원 중 소수자 비율
장애인, 탈북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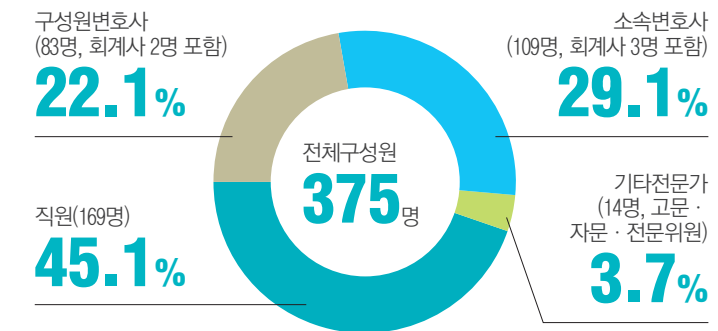
* 본사 구성원 중 장애인 비율은 3.1%로 민간 사업주 의무 고용률인 2.9%를 초과

전체구성원 국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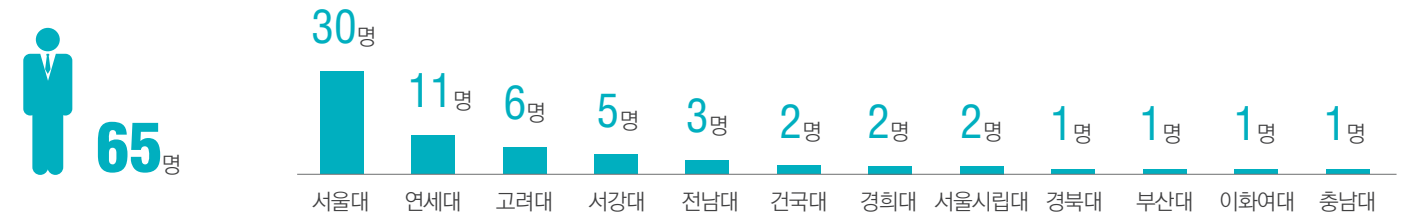
변호사 163명 (한국 147명, 외국 16명)
회계사 3명
기타전문가 14명
직원 143명

전체구성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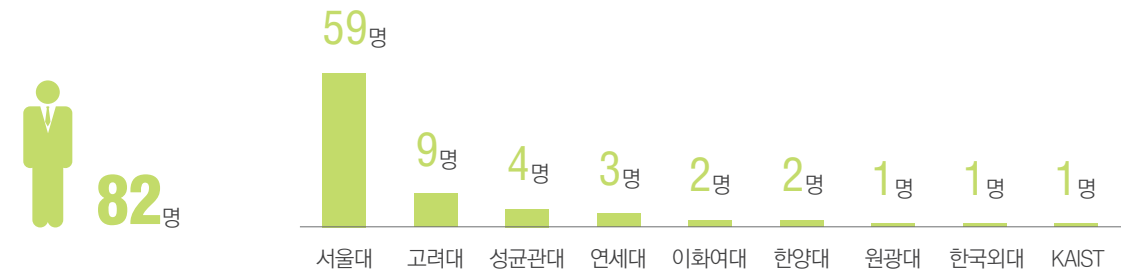


* 12. 31. 기준 지평 전체구성원 375명 / 서울사무소 직원 131명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 구성
2018년 한국변호사(147명 기준)



학부(사법시험)별 변호사 구성
2018년 한국변호사(147명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

지평은 12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장애인고용법」 제 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무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고, 특히 2018년도에는 「장애인고용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소속 강사 네 분(김단진, 배승천, 오지우, 최현진)이 진행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과 편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지평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외에도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권소위원회 설치 및 활동 등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히 고백하는 미투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평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적 언동 또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2018년 9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충상담창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과 조언, 관련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안의 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평은 건강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지평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에게 단절 전 경력에 맞는 포지션에 따라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고 싶으나 자녀를 돌봐줄 곳이 없어 퇴사를 하게 된 비서 직원들에게는 채용 건이 있을 때 연락을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고, 2018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은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을 확대하여 범위를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03

소수자 차별금지

04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HR위원회는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품 변호사
HR위원회

로펌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지평은 예비구성원 변호사가 근로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동업자가 될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은 함께 성장해나갈 좋은 동업자를 찾고, 지평도 예비구성원 변호사의 좋은 동업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가 제출하는 이력서에 선발 과정에서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사진도 제출 받지 않습니다. 신입변호사는 인턴과제 평가, 생활지도 평가, 경영위원회의 최종 면접 및 결정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 학부전공, 법학전문대학원,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두루 선발함으로써,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지평 HR위원회는 인재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지평의 '사람 중심', '진정성', '진취성', '윤리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지평은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88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의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무수습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은 절반 이하로 서울대 편중현상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다양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인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기간	대상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실무수습	1차 2018. 1. 8. ~ 1. 19.	1학년 (9기)	20명	서울대 8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외대 각 2명, 건국대/경북대/인하대/한양대 각 1명
	2차 2018. 1. 22. ~ 2. 2.		25명	서울대 11명, 성균관대 3명, 고려대/서강대/연세대 각 2명, 경희대/아주대/부산대/이화여대/한양대 각 1명
하계 실무수습	1차 2018. 6. 25. ~ 7. 6.	2학년 (9기)	13명	서울대 7명, 연세대 2명,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 각 1명
	2차 2018. 7. 9. ~ 7. 20.		30명	서울대 15명,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 각 2명, 건국대/경북대/경희대/서강대/성균관대/아주대/중앙대 각 1명

05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출산 후 30일 내 유급휴가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출산휴가로 부여받고 있으나, 지평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취지로 출산 시 배우자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후 60일 내에 10일의 유급휴가(불연속)를 부여하고, 육아휴직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 시행에 앞서 지평은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지평 구성원과 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0만 원(매월 10만 원씩 10개월 분할 지급)의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면서 육아부담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에는 1년여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지평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러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2017년 3월에 도입하여 시행 중인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제도는 장기근속한 구성원에게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프로의 경우 3년을 근무한 예비구성원(2주일), 직원의 경우 10년 차(2주일), 20년차(1주일)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안식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프로 및 직원들의 휴식과 충전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한 예비구성원의 경우 75% 정도 안식휴가 사용을 하였고, 특별 업무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성준 변호사

입사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둘째가 태어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무일수가 얼마 되지 않아 휴가 사용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아무 불편 없이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첫째를 챙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수업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열흘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첫째 아이와 더 나아가 가족을 돌보는 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된다면, 다자녀 가정에는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장소라 변호사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배려 덕분에 안식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점은 일상에서 벗어나 그 일상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바쁜 업무에 치여 입사할 때의 초심을 잃어갈 때쯤 회사 밖에서 내가 있던 자리, 내 주변 사람들, 일의 의미 등을 생각해보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식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많은 후배님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회사로 돌아와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 조직 및 활동

지평은 2015년 환경실천소모임을 구성(변호사 6명, 직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전기절약, 종이컵 줄이기, 이면지 사용 등 다양한 캠페인을 사내에서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기절약 순찰대를 조직하여 각 층마다 늦은 밤 중이나 주말에 불이 켜진 곳이 없는지 점검하였고, 2017년에는 '모두의 책꽂이'란 이름의 중고책방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차 없는 날' 공지 및 자전거 타기 행사 진행

매년 9월 22일은 '차 없는 날'입니다. 대중교통,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날입니다. 지평은 차 없는 날이 마침 토요일인 관계로 한강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는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차 없는 날 이외에도 환경 관련 기념일이 있는 날마다 지평 구성원들에게 기념일의 취지를 공유하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 진행

지평과 두루는 올 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커피컵 홀더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커피숍에서는 매년 일회용 커피컵 홀더를 제공받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커피컵 홀더는 한번 사용 후 버려지게 됩니다. 이에 환경실천소모임에서 뜨개질로 홀더를 만들어 재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참석했던 50여 명의 구성원들이 뜨개질로 만든 홀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6

탄소배출 감소 및 재활용품 사용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향해 지평과 함께 걸은 길을 듣다

아나파의원 원장 /
진실의 힘 이사 **강용주** 선생님
진행 법무법인(유) 지평 **김승현** 변호사

“보안관찰법은 길들이려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길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권력보다 우월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근대 자유로운 시민이 탄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세기의 ‘길들이지 않을 자유’를 넘어, 21세기의 ‘원하는 것을 실현할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과거의 유산과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안관찰법」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사회를 비판하고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제정한 「사상범보호관찰법」에 뿌리를 둔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공안당국의 판단에 따라 종신형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6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채 신고를 하지 않는 불복종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로서 고문 생존자 치유 활동을 지원한 것이 간첩 회합이라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조작해 터무니 없는 사유로 보안관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보안관찰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종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것처럼 당연한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 기쁩니다. 「보안관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대해 반성하고 바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얼굴을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꽃 피우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 민주사회입니다.

지금도 「보안관찰법」과 맞서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 초 법원에서 보안관찰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신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조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감시 아래에 두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지평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 : 법무부는 강용주 선생님과 지평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터뷰 후인 2018년 12월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함께한 사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평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간첩조작 사건, 재심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처음 나선 것이 지평이었습니다. 몸 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묵묵하고 꾸준히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늘 지평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평의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큰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INTERVIEW

02

공익활동 이야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팀에게 장애인권 제도개선 방향을 듣다

장애인권리협약 연구용역팀

(법무법인(유) 지평 윤재훈, 김이안, 신혜주, 이채린 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이태영, 최초록, 마한얼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지평과 두루는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장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큰 프로젝트였던 만큼, 지평과 두루에서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여 매주 세미나를 열어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 연구용역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주언 육아휴직 중에 임성택 변호사님과 이태영 변호사님으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 연구용역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성택 변호사님과 2014년에 제네바 유엔 본부에 가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태영 이 연구용역은 한국의 장애인권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였기에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반적인 내용, 심의 절차와 과정 등을 이해하고, 앞으로 장애인권 영역에서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용역팀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 보람을 많이 느끼셨나요?

윤재훈 장애당사자와 장애인체들이 함께한 그룹 인터뷰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사나 통계를 넘어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고, 연구용역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보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초록 지평 변호사님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여 매주 세미나를 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며 발제를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나요?

이채린 제가 담당했던 부분 중 장애아동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최종 견해도, 정부 답변도 없고, 문제 제기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장애인권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이라고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주언 저는 이번 용역에서 교육을 맡기도 했고, 평소에도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농민 법률가 마이클 슈와츠 교수님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을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교육과 연결되기도 하지요. 장애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팀을 마치면서 소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을 들려주세요.

윤재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를 타이핑하면서도 서늘한 글자들이 많았는데, 이 보고서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주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 볼 때가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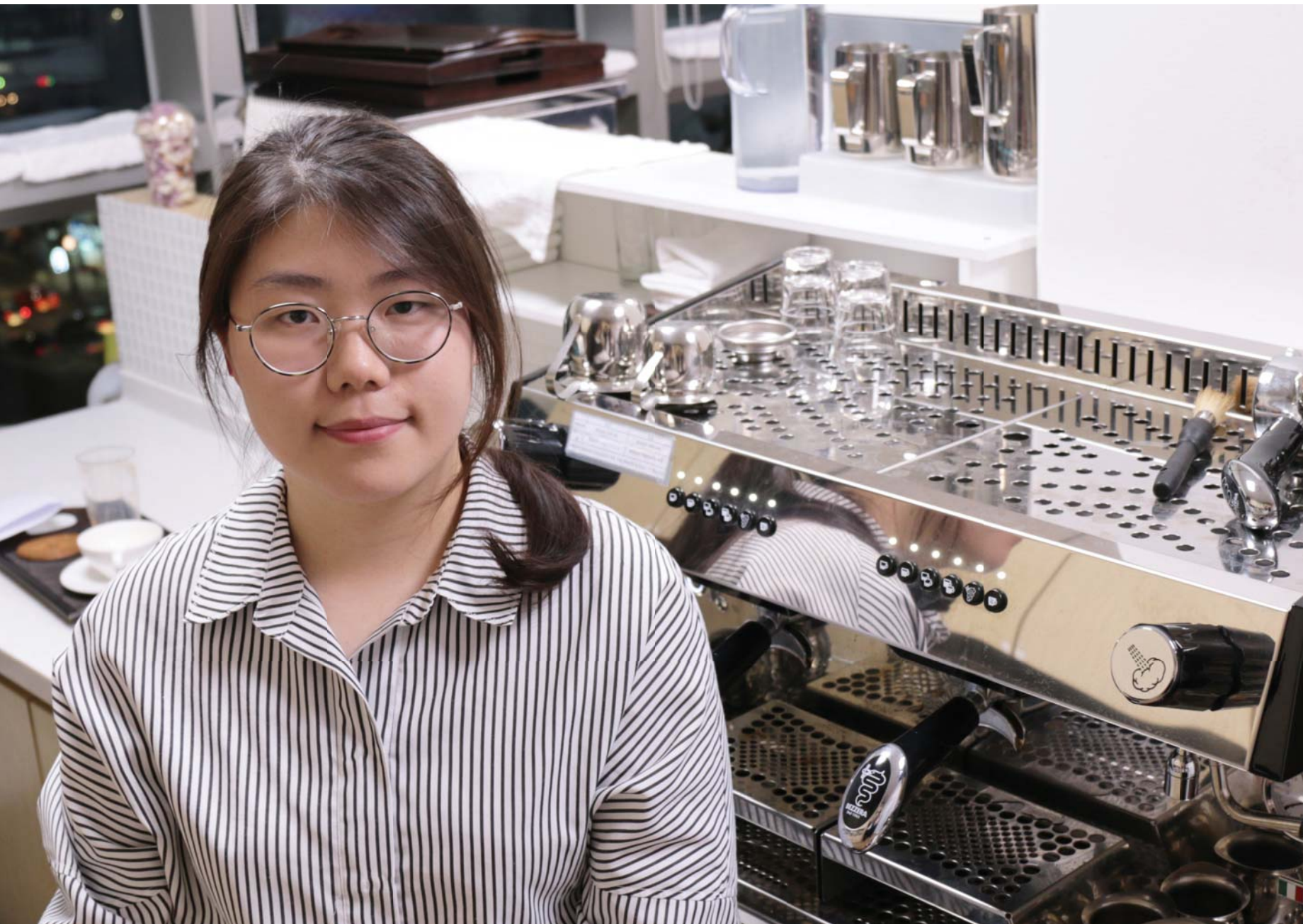
김이안 돌이켜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늘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구용역팀 변호사님들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뒤편이 때 삼청동에서 수제비를 먹고 한옥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일도 오래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INTERVIEW 03

공익활동 이야기

바리스타 오경선 사원을 만나다

법무법인(유) 지평
리셉션 / 바리스타 오경선 사원
진행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바리스타인 오경선 사원은 지평 회의실에 방문하신 분들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평 리셉션 오경선 사원이 직접 만든 커피를 마시며 지평에서의 생활과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된 계기와 바리스타를 하면서 힘든 점, 즐거운 점이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책을 보고 커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 원두로 만든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리스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은 커피머신 열기 때문에 너무 덥다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커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한꺼번에 12잔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고객께서 라테아트가 예쁘다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평에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었나요?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4-5군데 커피숍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도 봤는데 잘 안되었어요. 손님과 대화가 잘 안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카페도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청음회관'이라는 곳에서 지평의 바리스타 채용 소식을 알려주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채용 공고를 냈고 제가 합격해서 2018년 5월 28일부터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에 입사해서 어떤 공익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지난 주 토요일에 연탄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급식봉사활동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점자도서 입력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에 입사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많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봉사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연탄을 하나씩 옮기면서 협동심이 느껴졌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회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저는 전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 분들이 정말 잘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잘 맞추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리고, 제 커피를 맛있게 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맛이 없다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위즈돔’ 창업자로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소풍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소풍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나요?

대학 시절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넥스터스(Nexters)'라는 단체를 설립한 적이 있어요. 당시 소풍 설립자인 이재웅 대표님(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 소풍이 투자할만한 소셜벤처를 찾기 위해 넥스터스를 찾아와주셨고, 그렇게 소풍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했었고, 창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보자”는 이재웅 대표님의 설득에 이끌려 소풍으로 오게 되었어요.

소풍은 어떤 소셜벤처에 투자하나요? 소셜벤처들이 말하는 ‘임팩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지향과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한 팀을 우대하는 편이에요. 소셜벤처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하나의 척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잣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핏'에 맞게 그 개념을 변주할 여지가 있어야 해요.

소풍을 이끄시면서 가장 힘든 점, 그리고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를 '팀'이라고 부르는데, '팀'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볼 때가 가장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회사의 성장 속도와 리더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우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데,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괴로웠습니다. 가장 큰 보람도 '팀'과 관련된 것이에요. 팀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리더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정말 기뻐요. 저희는 저희의 조연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수시로 목격합니다.

지평·두루의 소셜벤처 법률지원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평과 두루의 프로보노는 실제로 소셜벤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 대부분이 법률 수요가 있지만, 대체로 초창기 기업들인 까닭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모두가 '기업가'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기업가 정신'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기반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평과 두루에서 소셜벤처를 위해 하시는 일이 '기업가'가 아닌 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SOPOONG(이하 '소풍')은 2008년 설립된 사회적 투자사로서, 쓰카, 텀블벅, 자란다 등 42개 소셜벤처에 투자하여 총 기업가치 6,422억 원을 만들어낸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 3월 소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풍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소셜벤처 기업들이 안정적인 법률적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NTERVIEW 04

공익활동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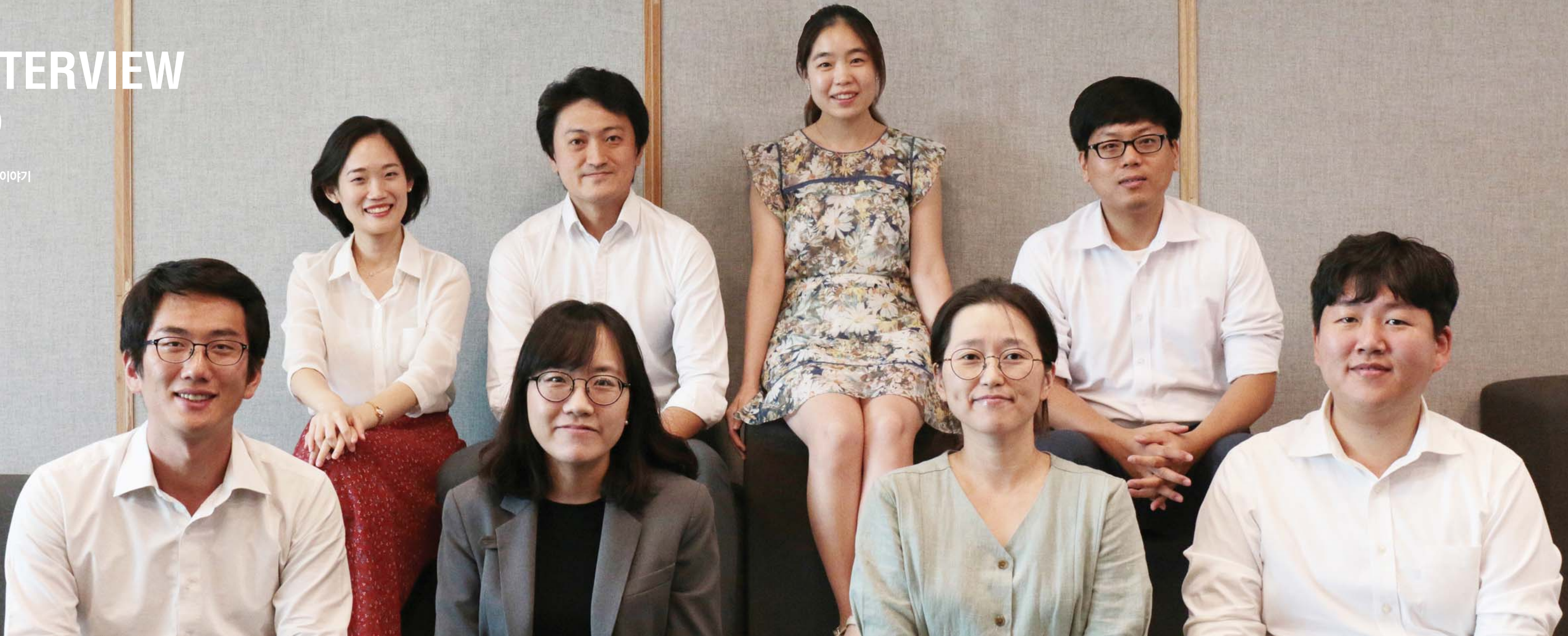
소셜벤처를 위한 소셜벤처, 'SOPOONG'을 이끄는 한상엽 대표에게 듣다

SOPOONG **한상엽** 대표
진행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INTERVIEW 05

공익활동 이야기



설립 5주년을 앞둔 ‘두루’, 8인의 공익변호사가 된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김용진, 이주언, 최초록,
이태영, 이상현, 엄선희, 마한얼 변호사

진행 법무법인(유) 지평 김승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두루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두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2014년 9월 지평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 9월에는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루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이제 어느덧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리고 소수자일수록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일이 많고, 법률에 기대야 할 순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밀 법률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또는 반대로 기존의 규범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순간이라면 공익변호사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두루 김용진 변호사의 이 같은 인식처럼 두루 변호사들은 때로는 법률에 기대어, 때로는 법률에 반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제인권 업무를 맡고 있는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개별적인 소송 사건이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일은 결국 제도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루 변호사들은

개별적인 공익소송·공익자문과 입법지원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 사건의 경우는 특히 한 건 한 건이 제도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 개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좋은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몫이죠.”

두루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게 될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로 개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위헌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는 단지 한 사람의 구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근간을 교정하는 일하기에 보람도 더 큼니다. 두루에 최근 입사한 마한얼 변호사도 출생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한 아동들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 등록해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공백들, 그리고 이런 공백들을 메우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두루 변호사들은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을 비롯하여 제도개선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데,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이 같은 업무특성 탓에 힘든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공익변호사로서 공익소송, 상담 및 자문, 연대활동, 교육활동, 입법지원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바 ‘멀티태스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힘든 것보다는 즐거움과 보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

물론 두루 변호사들에게 보람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 이주연 변호사는 장애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책임을 묻는 소송을 수행하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 되어 법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셈이지만, 의뢰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증장애인이었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엄마였으며, 암투병 중이기도 하셨어요.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셨던 까닭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것 외에 제도적으로 이 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았는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공익변호사로서의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변호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따른 대가관계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은 이렇듯 당장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더 좋은 세상을 더 강렬한 마음으로 꿈꾸게 됩니다. 물론 그 세상을 더 빨리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료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정은 변호사

아동, 청소년, 함께 하는 이들이 좋아 시작했고,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 활동합니다. 공익 법률활동이 사회 전반에 두루 뿌리 내리는 날을 꿈꿉니다.



김용진 변호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률자문과 제도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활성화가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태영 변호사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현 변호사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구급,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보호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두루가 그리는 미래

“요즘 저희는 두루가 왜 설립되었는지, 저희가 두루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루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그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루 이주연 변호사의 말처럼, 두루의 변호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두루의 미래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은 길고 또 깊은 토론을 거치며 그간 흐릿했던 것들이 하나 둘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물론 만 다섯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단체인 탓에 정체성에 관하여도, 미래에 관하여도, 아직 그려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입니다. 여기서의 ‘동료’는 단지 두루 소속 변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도 공익법률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감이 정말 많은데 업무량의 한계로 더 말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두루에서 변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익법률활동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 한 명 한 명이 더 잘해서 공익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 한 명이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는 일이 보다 효과적인 기부일 수 있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 두루 변호사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물론, 강 변호사의 얘기처럼, 두루 변호사들은 “일단 우리가 잘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위하여

두루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구제하는 일 외에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이러한 일도 결국 소수자를 대변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업무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본질은 같은 일일 것입니다.”

두루는 지평과 함께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소송을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지나치게 다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게 되었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 때문에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민주사회의 근간인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형해화한 정보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자문 및 제도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도 결국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평과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임팩트

두루는 지평과 머리를 맞대고 손을 모으는 일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익변호사가 연차가 낮아 법률전문성이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평과의 협업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지평의 존재가 두루에게 더없이 든든한 이유는 공익활동에 대한 지평의 진지한 관심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평은 전반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으시고, 영역별로 점차 깊이까지 더해가고 있어서 무척 든든하고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익사업에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사건의 중요한 길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지평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의 지평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기대는 두루 변호사들이 활동의 폭을 과감히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연 변호사

장애와 차별이 무엇인지,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다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최초록 변호사

두루의 국제인권 영역,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연대 업무도 점차 늘려가고자 합니다.



엄선희 변호사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아동,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아동, 유아의 보육·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마한일 변호사

국제인권과 아동·청소년·교육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 받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와 함께 걸어주세요.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2018년 두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부자들 덕분에 두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땀방울과 눈물이 2019년에는 축복을 담은 눈송이처럼 맺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겨울 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설일 김남조

2018년 두루를 후원해 주신 분

강민제 강성국 강원일 강울리 강재영 강정은 고기승 곽은비 구나영 구동균 구상수 구자형 구정모 권창영
김무자 김병선 김석동 김성수 김승현 김영문 김영수 김옥림 김용길 김용진 김윤희 김이안 김이태 김재원
김종윤 김지형 김지홍 김진희 김태형 김판수 김하영 마한얼 민창욱 박경택 박보영 박보희 박성철 박시원
박영주 박은정 박정수 박지선 배성진 백종현 사봉관 서문용채 성창익 손계준 송한사 신 민 신재형 신혜주
심민현 심희정 안상훈 안중성 양영태 엄선희 여연심 오자성 유동호 유현정 윤영규 윤재훈 이광현 이광선
이병주 이상현 이상희 이 샘 이소영 이승민 이승현 이우규 이우진 이은영 이주언 이준길 이지혜 이채린
이태영 이태현 이형규 이혜은 이홍재 이 훈 임성택 임이지 장영은 장윤정 장 품 장향석 장현진 장효정
정승민 정 원 정 진 정 철 채희석 최명지 최정규 최정욱 최창민 최철웅 최초록 하지인 한철웅 황인영
(가나다 순)
법무법인(유) 지평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단법인 아산나눔재단

두루 FUN-딩

후원 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예금주 : 사단법인 두루)
140-012-354395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기부자 인터뷰

지평 골프모임

강원일 변호사

강원일 변호사는 지평 골프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두루에도 “나이스 샷”을 날려주는 골프모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루와 골프는 다소 어색한 조합인 것 같은데, 두루와 골프모임은 어떻게 이어져 있나요?

지평에는 사내골프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일년에 두 번(3~4월, 10~11월)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골프대회 참가자들이 버디와 파의 개수에 따라 기부금을 정해서 두루에 기부를 합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모임의 아름다운 전통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요?

골프모임을 하면서 김지형 대표변호사님께서 기부를 제안하였습니다. 골프모임에 김석동 고문님, 양영태 대표 변호사님을 포함하여 고문님, 시니어 파트너변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성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한다고 서로 나서서 골프를 칠 때보다 더 경쟁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두루의 기부자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운동을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후배 변호사들까지 도움 수 있어서 골프모임도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두루의 후배 변호사들과 지평의 선배들이 앞으로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겠네요. 두루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8년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8:144 (변호사100명당 5.6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11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7,778.63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4.97% (7,778.63시간/156,556.90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54.02시간 (7,778.63시간:144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55.96시간 (7,778.63시간:139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6.53% (139명/144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68.75% (99명/144명)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변호사 95.71% (67명/70명), 70명 50.71시간 (3,549.52시간:70명) 구성원변호사 97.30% (72명/74명), 74명 57.15시간 (4,229.11시간:74명)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활동 지원비	22,012,012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4,554,400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373,433,588원
총액		400,000,000원	

분야	평가지표	2018년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66건 공익자문 의견:315건 공익상담:267건 도움받은 사람:약648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 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소속변호사 및 직원 평가시 공익활동 반영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8년
A 기부	2.A.1 기부 총액	432,333,588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1,152,890원 (375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7.11% (419,833,588원 / 432,333,588원)
	2.A.4 기부 현황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 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3,039.6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8.11시간 (375명)
	2.B.3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8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 144명(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휴직자, 해외사무소 근무 등의 사유로 공익활동 면제를 신청한 자는 제외함)

* 공익전문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 고문, 자문·전문위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JIPYONG DUROO PRO BONO

2018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위원 강정은
강혜련
김용진
김우연
김윤희
김이태
김지형
김태형
김학규
류혜정
마한얼
박용대
서준희
엄선희
이동엽
이상현
이상희
이주언
이태영
임성택
임지윤
최정규
최초록
황인영

2018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서진하
신중길
이사 강울리 심희정
문영화 안현정
이혜영 양영태
임성택 엄선희
오세훈
감사 김영수 유정민
임승혁 윤재민
이공현
회원 강정은 이상현
강혜련 이상희
구정모 이소영
김성수 이승민
김용진 이주언
김우연 이태영
김윤희 이혜온
김태오 이 훈
김판수 정미자
마한얼 최윤영
박용대 최초록
박호경 하지인
배기완 한철웅
배성진 황인영
서문용채